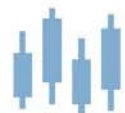




WP 20-25

신규 산업단지 입주 사업체의 이동경로에 관한 연구

김석윤 국토연구원 연구원 (sykim@krihs.re.kr)



※ 이 Working Paper의 내용은 국토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니며, 저자 개인의 의견입니다. 연구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점은 저자의 이메일로 문의하여 주시고, 인용 시에는 저자 및 출처를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차례

01 연구의 개요	05
02 선행연구 검토	11
03 입주사업체 신설 및 이전 비율과 이동거리	17
04 분석결과 종합 및 정책적 시사점	27
부록	31



01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기업의 입지 선택 내지 이동은 궁극적으로 기업의 이윤 극대화를 위한 의사결정이며, 공간 계획 측면에서는 기업활동이 공간적으로 조정되는 과정임
- 이 과정에서 대기업 또는 수도권의 혁신기업이 수도권 외의 산업기반이 취약한 지역으로 이동할 경우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지역의 균형발전에도 기여하게 됨
- 특히 지역 차원에서 산업단지는 지역산업의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주요 수단으로서 지역 내 산업의 집적뿐만 아니라 역외 기업 유치를 통해 산업화 기반이 상대적으로 약한 지역의 산업화에 크게 기여해옴
- 반면에 산업단지가 신규로 공급되더라도 입주수요의 대부분이 지역 내에서 발생하고, 수도권에서 타 지역으로 기업이 이동하는 경우도 극히 일부라는 연구결과들도 제시되고 있음
 - ※ 정윤선(2015)의 연구에서는 전국사업체조사 원시자료를 활용하여 지역 간 사업체 이전을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 동일 시·도 내 이전 비율을 전 산업의 경우 80% 수준으로 파악함
- 이는 신규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나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효과가 당초 기대했던 수준보다 낮고, 역외기업 유치 효과도 실제로 크지 않다는 것을 의미함
- 신규 산업단지 개발을 통한 산업입지 공급에 대해 이 같은 상반된 인식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신규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 중 신설 또는 이전을 통해 입주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이며, 이전을 통해 입주하는 경우 어느 지역에서 이전해 오는지, 이전의 공간적 범위는 어느 정도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 실증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음
- 이에 본 연구는 최근에 조성된 신규 산업단지와 이들 산업단지에 입주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신설 및 이전에 따른 입주 비율과 이전을 통해 입주한 사업체의 공간적 이동 범위를 분석하기 위해 수행함

- 특히, 금번 연구는 산업단지로 입주하는 사업체들의 공간적 이동에 초점을 두고 한국기업 데이터의 기업정보데이터¹⁾를 활용하여 보다 구체적인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들에 비해 차별성이 존재함
 - 그간 사업체 또는 기업의 이동과 관련하여 국토연구원과 산업연구원, 기타 학계의 산업 입지 분야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다수의 유사한 연구들이 수행되었으나,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수행된 연구는 없음
 - 또한 전국사업체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대략적인 시·도 또는 권역 간 이동 비율을 파악한 기존 연구들과 달리 법인등기부등본을 기초로 구축된 한국기업데이터의 기업정보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보다 구체적인 이동거리 및 범위까지 분석함

2) 연구의 범위

■ 내용적 범위

- 최근 지정·개발된 신규 산업단지의 입주 수요를 구성하는 신설 사업체와 이전 사업체의 비율을 지역, 산업단지 유형, 사업체 특성에 따라 분석함
 - ① 신설과 이전을 통해 신규 산업단지로 입주한 사업체의 비율을 전국 및 지역별로 분석
 - ② 이전을 통해 신규 산업단지로 입주한 사업체의 유입지(기존 소재지)를 지역별로 분석
 - 사업체 이동을 시·도 단위에서 분석
 - 사업체 이동을 6개 권역(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 강원권) 단위에서 분석
 - ※ 제주도는 분석대상 신규 산업단지가 없음
- 신규 산업단지로 이전한 사업체의 이동경로와 평균이동거리에 대해 GIS 공간분석기법을 활용하여 지역별(시·도별, 권역별)로 분석함
- 상기 분석 결과를 토대로 지역의 산업입지 정책 및 전략과 관련된 시사점을 도출함

■ 시간적·공간적 범위

- 분석대상 사업체는 2020년 6월 기준으로 분석대상 신규 산업단지에서 정상적으로 운영 중이고, 2010년부터 주소지 이동을 파악할 수 있는 경우로 설정함

1) 저자의 요청에 따라 한국기업데이터(Korea Enterprise Data)에서 제공한 2020년 6월 기준 기업정보데이터임. 한국기업데이터는 보증기관과 국책 금융기관 및 주요 시중은행 등으로부터 공신력 있고 검증된 기업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으며, 국내 최대의 기업정보 DB를 보유함.

표 1 분석대상 신규 산업단지로 이전한 사업체 현황(현 소재지 기준)

(단위: 개, %)

구분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인천	경기	강원	대전	충북	충남
개수(개)	78	701	46	30	85	13
비율(%)	4.5	40.9	2.7	1.7	5.0	0.8

구분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			합계
	전북	전남	경북	부산	울산	경남	
개수(개)	71	136	100	119	40	296	1,715
비율(%)	4.1	7.9	5.8	6.9	2.3	17.3	100.0

주: 분석대상 신규 산업단지로 이전한 사업체의 보다 구체적인 세부 현황은 [부록 1] 참조.
 자료: 한국기업데이터의 기업정보데이터와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보센터 www.industryland.or.kr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분석대상 신규 산업단지는 최근 5년(2015~2019년) 사이에 준공된 전국의 91개 산업단지로 설정하였으며, 여기에는 모든 산업단지 유형(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을 포함함
- 다만,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일부 산업단지는 분석대상 신규 산업단지에서 제외함
 - 산업단지 지정 후 실질적으로 개발 및 분양이 오래 전에 이루어졌으나, 최근에 준공처리된 산업단지를 제외하기 위해 2010년 이전에 지정된 산업단지는 포함시키지 않음
 - 또한 현 시점에서는 산업단지 구역계 확보가 어려운 일부 산업단지(2019년 말 이후 지정된 산업단지 등)와 분석과정에서 사업체 입주가 없는 것으로 파악된 대구와 세종의 산업단지 1개씩을 제외함

표 2 분석대상 신규 산업단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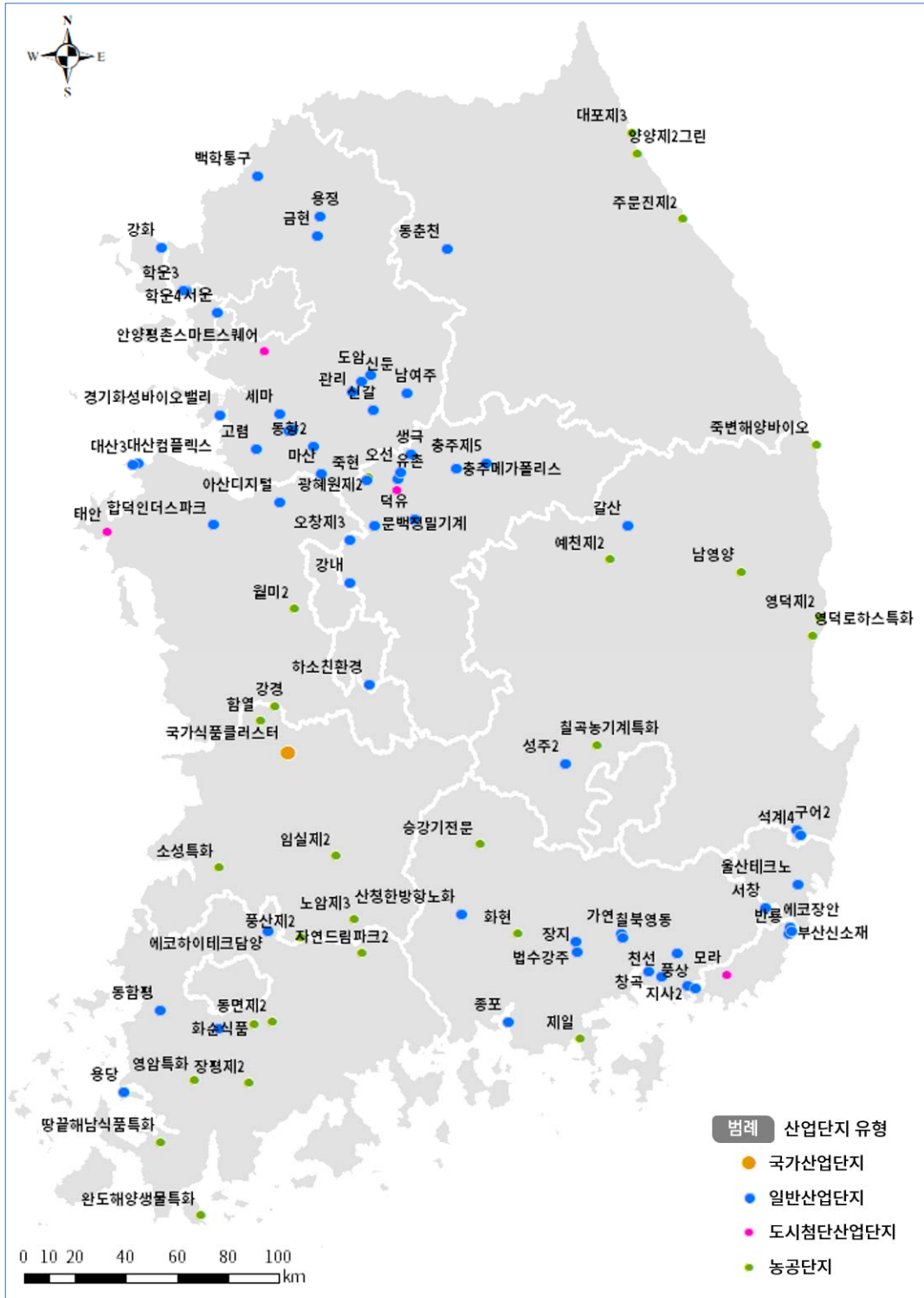
(단위: 개, km²)

구분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인천	경기	강원	대전	충북	충남
개수(개)	2	18	4	1	12	7
비율(%)	1.0	6.5	1.0	0.3	5.2	2.4

구분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			합계
	전북	전남	경북	부산	울산	경남	
개수(개)	10	14	6	6	1	10	1,715
비율(%)	3.2	4.1	3.7	1.2	1.3	2.4	100.0

주: 분석대상 신규 산업단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세부 현황은 [부록 1] 참조.
 자료: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보센터 통계분석 일반현황(<https://www.industryland.or.kr>, 2020년 9월 4일 검색)을 기초로 저자 작성.

그림 1 분석대상 신규 산업단지(91개) 유형별 분포



주: 제주도는 분석대상 산업단지가 없음.

자료: 국토교통부 산업단지정보센터의 내부자료(2019.12)를 기초로 저자 작성.

3) 기초자료 및 분석방법

■ 기초자료

- 본 연구에서는 한국기업데이터(이하 KED)에서 제공하는 사업체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사업체들은 정상 운영 여부, 위치파악 가능 여부, 업종 등을 고려하여 연구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재정리함
 - 분석대상 사업체는 2019년 말 기준으로 정상운영 중이고, 산업단지 내에 위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주소가 존재하는 경우만으로 한정함
 - 또한 분석대상 산업단지 내에 위치하는 것으로 확인된 사업체 중에서 생산 및 제조 활동을 영위하지 않는 서비스 업종은 개별 확인을 통해 제외시킴
 - ※ 제외업종 예: 산업단지 내 종사자 지원 성격의 편의점, 세탁소, 택시영업소 등 서비스 업종
- 특히, 신규 산업단지로 입주하는 사업체들의 신설 및 이전 여부와 공간적 이동을 파악하기 위해 각 사업체의 주소지 이력에 대한 시계열 패널자료를 구축함
 - KED에서는 본사 기준 기업개요(사업자등록번호, 업체명, 주소, 표준산업분류, 기업상태, 기업규모 등 포함)와 재무 및 인력 현황, 사업장 정보(사업장 분류, 사업장명, 사업장 주소, 대지 및 건물 규모 등) 등을 제공함
 - 본 연구에서는 사업체 이동을 파악하기 위해 사업장 정보를 주로 활용하였으며, 사업장 정보에서 제공하지 않는 표준산업분류, 기업상태(정상 운영 여부), 기업규모 등에 대한 속성을 활용하기 위해 본사기준 기업개요 정보와 결합시킴
 - 결합된 사업장과 본사기준 기업개요 정보를 기초로 2010년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의 주소지 이력에 대한 시계열 패널자료를 구축함
 - ※ 다만, 금번 연구에서는 현 소재지와 직전 소재지에 대한 주소지 이력만을 사용함

표 3 KED에서 제공하는 기업개요와 사업장 정보를 결합한 주소지 시계열 패널자료 속성

기업개요 정보(본사 기준)	사업장 정보
일련번호	변경일(정보 업데이트 일자)
KED 구분코드	변경일련번호(정보 업데이트 일련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구분(본사/사업장/국내지사/기타)
법인등록번호	사업장일련번호
본사명	사업장명(본점, ○○공장 등)
표준산업분류코드	연도별(2010~2020) 사업장 주소 및 좌표
설립일	대지규모(m ²)
기업상태	건물규모(m ²)
기업규모	임차보증금
주소 및 좌표	월세

주: 사업장 정보 중 연도별 사업장 주소는 변경일(정보 업데이트 일자)과 변경일련번호를 기준으로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연도별 시계열 자료로 구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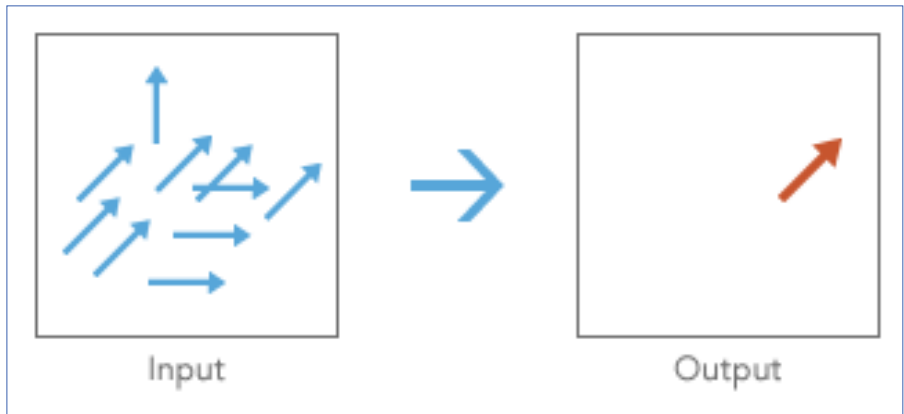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 또한 KED 자료를 기초로 구축된 시계열 패널자료 중 신규 산업단지에 입주한 사업체를 추출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보센터에서 보유한 해당 산업단지들의 구역계(91개)를 활용함

■ 분석방법

- 선행연구를 통해 사업체의 공간적 이동에 관한 특징 및 경향과 산업단지 정책적 측면의 시사점을 살펴보고, 본 연구의 분석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세부사항들에 대해서 검토함
- 다음으로 사업체의 공간적 이동을 분석하기 위해 GIS의 지리적 공간분석 기법 중 하나인 방향성 평균(Linear Directional Mean) 분석기능을 활용함
 - ※ 방향성 평균(Linear Directional Mean) 분석기능은 OD자료와 같이 방향성을 가진 선형의 벡터에서 평균적인 거리와 방향을 산출할 수 있는 GIS의 지리적 공간분석기법임

그림 2 방향성 평균(Linear Directional Mean) 기능 예시도



출처: ArcMap 10.5에서 해당 기능 설명 내용.

02 선행연구 검토

1) 선행연구의 주요 내용

- 기업의 지역 간 이동에 대해 분석한 연구들은 GIS 소프트웨어를 통한 공간분석기법의 활용이 활성화되고, 활용 가능한 기업 또는 사업체 관련 정보가 다양해짐에 따라 증가하기 시작함
- 이러한 연구들에서는 사업체의 이동 현황 및 패턴을 파악하고, 사업체의 이동에 따른 효과와 사업체의 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등에 대해 패널분석 또는 로지스틱 회귀분석 등의 방법론을 적용하여 분석함
- 김창석, 남진(1996)은 수도권 소재 기업 본사와 공장 간의 공간적 분포 및 분리입지 정도를 분석하고 수도권에서 기업 본사의 입지이전에 대해 시계열적으로 분석함
 - 분석결과 본사가 수도권이면서 수도권에 공장을 운영하는 기업의 비율이 1985년부터 1995년 사이에 지속적으로 감소하였고, 본사와 공장 간의 거리도 1985년 59.6km, 1990년 62.5km, 1995년 80.8km로 증가함
 - 또한 수도권 내에서 본사의 입지이전에 대한 분석(OD 분석)을 통해 1985년부터 1995년 사이에 이루어진 수도권 내에서의 본사 이전 중 서울에서 서울로 이전한 경우가 72% 수준을 유지하였고, 서울로의 입지이전 경향이 지속적으로 강하게 나타남을 확인함
 - 김창석, 남진(1996)의 연구는 본사가 수도권에 위치한 비교적 규모가 큰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와는 분석 대상이 다르지만, 기업 본사의 경우 서울을 중심으로 분포하고 이전의 경우에도 서울로 유입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 시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있음
- 정수연(2008)의 연구는 코스닥 기업을 대상으로 입지이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분석하기 위한 과정에서 기업의 입지이전 경로를 조사하였고, 이를 통해 시·도 단위에서 이동한 사업체 수를 집계
 - 그러나 김창석, 남진(1996)의 연구와 동일하게 본사를 기준으로 기업의 지역 간 이동 비율을 제시하였고, 연구의 목적상 구체적인 이동 거리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분석을 수행하지 않음

- 또한 본사를 기준으로 기업의 지역 간 이동 비율을 파악하였기 때문에 타 시·도에서 서울로 이전한 비율이 33.2%로 나타났으며, 이는 김창석, 남진(1996)의 연구에서 확인된 기업 본사의 이전 경향과 유사한 결과로 나타남

- 최준영, 오규식(2012)은 1999년부터 2008년까지 ICT기업(ICT 제조업과 ICT 서비스업)의 지역 간 입지이동 현황과 입지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분석함

※ 분석결과 ICT 제조업의 경우에 입지이동 거리가 1992부터 2008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고, 서울에서 수도권으로 분산되는 경향과 함께 소기업에서의 높은 이동 비율을 확인함.

표 4 사업체(기업) 이동에 관한 선행연구

저자	연구명	주요 관련 연구내용	연구방법	비고(활용자료)
김창석 남진 (1996)	수도권지역 기업본사의 입지이전 경로와 특성에 관한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본사의 입지이전 경로와 경향에 대한 시계열 분석 • 기업본사와 공장 및 분공장의 분리입지 정도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IS 공간분석 	한국능률협회, 매일경제신문, 대한상공회의소 등의 자료
정수연 (2008)	한국 상장, 코스닥 기업의 입지이전결정요인과 입지특성에 관한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의 입지이전경로 분석 • 기업입지이전의 결정요인(지역특성, 기업특성 요인 고려)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패널자료 구축 • 다항로지스틱 회귀 분석 	한국신용평가정보 기업자료
최준영 오규식 (2012)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의 지역 간 이동 패턴 및 요인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CT기업의 입지이동 현황(시군구/권역 단위)과 영향요인 분석 • 국토 및 지역 차원의 산업입지정책 수립을 위한 시사점 도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IS 공간분석 기법 - Flowmapper - Flow Data Model 	매일경제신문사 기업연감
안흥기 서태성 박경현 (2014)	지역개발사업의 과다수요추정 원인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체의 지역 간 이동범위(시군구/시도 단위) 조사 ※ 단, 동일업체 판단기준 불명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패널자료 구축 	전국사업체조사 원시자료
안영수 이승일 (2014)	수도권 기업이동 공간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산업유형별 기업이동 특성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 이동 공간데이터베이스 구축 방법론 개발 • 산업 유형별 기업이동 특성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IS 공간분석 기법 - 방향성 분포 - 선형 방향성 평균 	매일경제신문사 기업연감
정운선 (2015)	기업의 지역 간 이동분석 및 정책적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의 지역 간 이동(시도/권역 단위)의 공간적 특성과 기업의 특성 파악 • 기업의 이동요인 도출 • 이동기업의 고용창출 효과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패널자료 구축 • DID(Difference-in-Differences) 추정 • 다항로지스틱 회귀 분석 • 패널분석 	전국사업체조사 원시자료
산업 연구원 (2016)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현황 및 이전요인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 기업의 이동현황 분석(시군/시도 단위 분석) •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요인 및 이전수요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패널자료 구축 • 설문조사 	전국사업체조사 원시자료
황성호 이재우 (2018)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이동 특성: 대덕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유입지, 유출지, 이동거리, 체류기간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통계 	입주기업 공부(公簿)

자료: 저자 작성.

- 안흥기 외(2014)는 지역개발사업의 과다수요 추정 원인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산업단지 입주수요의 공간범위 설정에 대한 적절성을 실증분석하였고, 이를 통해 동일 시·도 내 사업체 이전 비율이 제조업의 경우에 68.6%(전 산업의 경우 79.4%)라고 분석함
 - 안흥기 외(2014)의 연구는 본사를 기준으로 기업의 이동을 분석한 선행연구들과는 달리 사업체 단위에서 그 이동을 분석하였고, 전국을 공간적 범위로 시·도 내 이전과 시·도 간 이전의 비율을 제시함
 - 다만, 시·도 단위에서 행정구역, 업종, 기업규모 등에 따른 이전의 비율만을 제시하였고, 구체적인 이동거리나 이동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연구의 목적상 다루지 않음
- 안영수, 이승일(2014)은 수도권을 공간적 범위로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세부 산업유형별로 입지이동 전후의 분포 변화와 이동방향에 대한 차이를 분석함
 - 안영수, 이승일(2014)의 연구는 본 연구와 동일한 공간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기업의 평균이동거리나 이동의 방향성을 도출함
 - ※ 제조업에서의 평균이동거리는 경공업 5.9km, 중공업 9.4km, 첨단산업 7.7km, 서비스업 4.8km라는 분석결과를 제시함
 - 그러나 기초자료²⁾가 본사 기준인지 또는 사업체 단위에서 구축되었는지는 확인이 필요하며, 분석의 공간적 범위가 수도권 내로 한정됨
- 정윤선(2015)은 안흥기 외(2014)의 연구와 유사하게 전국사업체조사 자료를 기초로 2004년부터 2013년까지의 기간에 이루어진 기업의 지역 간 이동을 지역별, 업종별, 사업체 형태별 등으로 세분화하여 분석함
 - 전 산업에서 이동기업의 80.1%가 시·도 내 이동이라는 분석결과를 도출하였고, 이동기업 분류를 기초로 기업이동 요인 및 효과를 분석함
 - 다만, 연구의 주목적상 업종별 지역이동과 관련해서는 이동기업의 비율만 제시하고 지역 간 이동에 대해서는 별도의 구체적 결과를 제시하지 않았으며, 평균이동거리나 방향성에 대한 객관적 분석을 수행하지는 않음
- 산업연구원(2016)의 연구는 전국사업체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수도권에서 타 시·도로 이전하는 기업의 수 및 비율과 수도권 소재 기업의 주요 이동특성을 분석함
 - ※ 수도권 소재 기업은 수도권 경계지역으로 도로망을 따라 이동하고, 2단계(서울에서 경기, 경기에서 충청권)에 걸쳐 지역 간 이동이 이루어지며, 장치산업(기계, 금속 등)을 중심으로 이동이 이루어진다고 제시함
- 황성호, 이재우(2018)는 대덕테크노밸리에 입주한 기업들의 공부(公簿)문서를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대덕테크노밸리에 입주한 기업의 유입지역과 유출지역을 조사하였고, 이동거리와 체류기간 등을 분석함

2) 안영수, 이승일(2014)의 연구에서는 매일경제신문사에서 발행하는 기업연감(2006; 2011)을 기초자료로 활용함.

2) 본 연구에 주는 시사점

■ 사업체의 이동패턴 측면

- 선행연구들에서는 전체 기업 중 이전기업의 비율은 매우 낮으며, 기업의 지역 간 이동특성으로 ① 근거리 이동, ② 제조업 업종에서 활발, ③ 소규모 기업의 높은 이동성 등을 공통적으로 제시함
- 지역별로는 수도권 내에서 이동이 활발하게 나타나고, 수도권과 광역시 소재 기업들이 인접 도와의 접경지역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있다고 파악함

■ 산업단지 관련 정책 측면

- 산업기반이 약한 지역에서의 산업단지 조성 정책에는 한계가 존재하며, 기존 산업집적지의 인접성 및 교통 여건을 고려한 산업입지 정책이 요구된다는 시사점을 대부분 제시함
- 특히, 지역 내 성장동력 확보 차원에서 첨단산업을 육성하고자 할 때에는 산업단지 조성과 함께 전문인력 공급 및 차별화된 지원을 반드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시됨

■ 연구방법 측면

- 상기의 사업체 이동패턴이나 산업단지 관련 정책 측면의 시사점은 일반적인 상식으로 치부될 수도 있지만, 이는 선행연구들이 연구의 목적상 제도적 또는 정책적 시사점 도출보다는 기업이동 현상을 실증하는 데 중점을 두었기 때문으로 판단됨
- 다만, 연구의 수행 방법 측면에서는 기존의 연구들을 해석하거나 본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함
 - 우선 이동에 대한 분석대상을 본사로 할 것인지 또는 그와 연계된 하위 사업체(공장 등)로 할 것인지에 따라 상반된 결과가 도출될 가능성도 존재하며, 해석상 주의가 필요함
 - ※ 예를 들어 본사를 대상으로 기업의 이동을 분석할 경우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집중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공장과 같은 사업체를 대상으로 분석할 경우에는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분산되는 경향이 나타나게 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커짐
 - 또한 행정구역별로 이전 여부와 규모를 집계할 경우에는 지역 간 이동 비율 및 거리의 해석에 주의를 요한다는 것임
 - ※ 시·도 간 접경지역에서 사업체 이전이 활발한 경우 이동거리가 매우 근거리임에도 시·도 간 이전으로 집계되어 원거리 이전 비율이 높다고 해석될 수도 있음

표 5 본 연구와 관련한 선행연구의 주요 시사점

저자	주요 시사점	비고
사업체 이동패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체 기업 중 이전기업은 매우 낮은 비율을 차지 	정윤선(2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일 시·도 내와 시·도 간 사업체 이전 비율은 전 산업 기준으로 8:2 수준 ※ 제조업에서는 7:3 정도로 파악(안흥기 외 2014) 	안흥기 외(2014) 정윤선(2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의 입지이전은 근거리에서 이루어지는 경향이 강하며, 수도권에서 이동이 활발 기업 및 사업체의 입지이전은 제조업 중심이며, 제조업 중에서도 세부 산업별로 이동확률이 높은 업종과 낮은 업종이 존재 기업의 규모가 작을수록 기업의 입지이동이 활발 ※ 규모가 작을수록 생산품목과 경영전략의 변화에 민감하므로 이동성이 높음 	김창석, 남진(1996) 정수연(2008) 최준영, 오규식(2012) 안흥기 외(2014) 정윤선(2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도권과 광역시 소재 기업들은 인접 도와의 접경지역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존재 	정윤선(2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도권으로의 본사 집중과 수도권 공장의 수도권 외곽 및 지방 분산 현상 지속 ※ 본사의 경우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서울과 같은 대도시 입지이전 가능성이 높음 	김창석, 남진(1996)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의 생애주기가 기업의 입지이전 경향에 영향을 미침 	정수연(2008) 최준영, 오규식(2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통과 기술의 발달에 따라 본사와 공장 간 공간적 연계성의 강도 약화 	김창석, 남진(1996)
	<ul style="list-style-type: none"> ICT 제조업의 이동은 수도권과 동남권에서 활발하며, 수도권 남부와 충청권으로의 유입이 증가하는 추세 	최준영, 오규식(2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도시(혁신도시 등) 개발 시 주변지역 기업의 신도시 이전이 활성화 	정윤선(2015)
	산업단지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의 근거리 이동 특성은 산업기반이 약한 지역에서의 산업단지 조성 정책에 한계가 존재함을 의미(산업입지정책은 기존 산업집적지와 인접하고 교통망이 우수한 곳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업단지와 같은 집적지 조성이 ICT제조업의 유입에 긍정적 영향력을 발휘 		최준영, 오규식(2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에 집중된 본사의 타 지역 분산을 위해서는 첨단서비스업 집산화 필요 ※ 즉, 서울이 지닌 전문인력 확보 측면의 강점을 지역 차원에서 강화 필요 		김창석, 남진(199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업종별로 기업의 이전정책에 차별화가 필요 ※ 업종별로 기업의 이전 특성과 가능성이 상이 		정윤선(2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간 기업의 이전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교통여건 개선 정책과 병행이 필요 		정윤선(2015)
연구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동의 분석 대상(본사 또는 공장)에 따라 상반된 결과가 도출될 가능성이 존재하며, 해석상의 주의가 필요 	최준영, 오규식(2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정구역별로 이전 여부와 규모를 집계할 경우 이동거리 해석에 주의가 필요 ※ 사업체의 시·도 간 이전이 비교적 활발한 경기도와 충청도의 경우 이동거리가 매우 근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시·도 간 이전으로 집계 	정윤선(2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의 입지이전 자료를 기초로 입지결정요인 분석 등으로 연구의 확장이 가능 	정수연(2008) 안영수, 이승일(2014)

자료: 저자 작성.

03 입주 사업체 신설 및 이전 비율과 이동거리

1) 지역별 사업체 신설 및 이전

- 분석대상 91개 신규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2020년 6월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1,715개 사업체 중 신설을 통해 입주한 경우는 28.0%(480개)이고, 이전을 통해 입주한 경우는 72.0%(1,235개)로 파악됨

표 6 신규 산업단지에 입주한 사업체의 신설과 이전(산업단지 소재 시·도별)

(단위: 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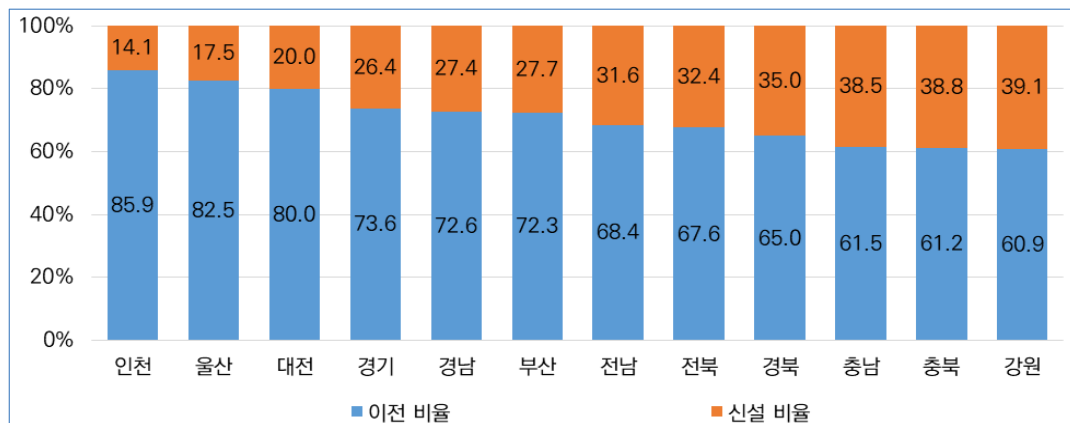
구분	분석대상 산업단지 소재 시·도												합계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			
	인천	경기	강원	대전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부산	울산	경남	
신설	11	185	18	6	33	5	23	43	35	33	7	81	480
이전	67	516	28	24	52	8	48	93	65	86	33	215	1,235
합계	78	701	46	30	85	13	71	136	100	119	40	296	1,715
이전 비율	85.9	73.6	60.9	80.0	61.2	61.5	67.6	68.4	65.0	72.3	82.5	72.6	72.0

주: 서울, 대구, 광주, 세종, 제주는 분석대상 신규 산업단지가 없음.

자료: 저자 작성.

- 지역별로는 광역시인 인천, 울산, 대전, 부산의 이전 사업체 비율이 평균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충남, 충북, 강원의 경우에는 타 시·도에 비해 사업체 신설을 통한 입주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3 신규 산업단지에 입주한 사업체의 신설과 이전 비율(산업단지 소재 시·도별)



자료: 저자 작성.

■ 시·도별 사업체 이전

- 이전을 통해 신규 산업단지에 입주한 1,235개 사업체 중 입주 전 소재지가 동일 시·도인 경우는 71.1%(878개)였으며, 878개 사업체 중 65.1%(572개)는 동일 시·군·구에 위치했던 사업체임
 - ※ 전체 이전(1,235개) 대비 동일 시·군·구 내 이전(572개)의 비율은 46.3%임

표 7 신규 산업단지 이전 사업체 중 시·도 내 및 시·도 간 이전

(단위: 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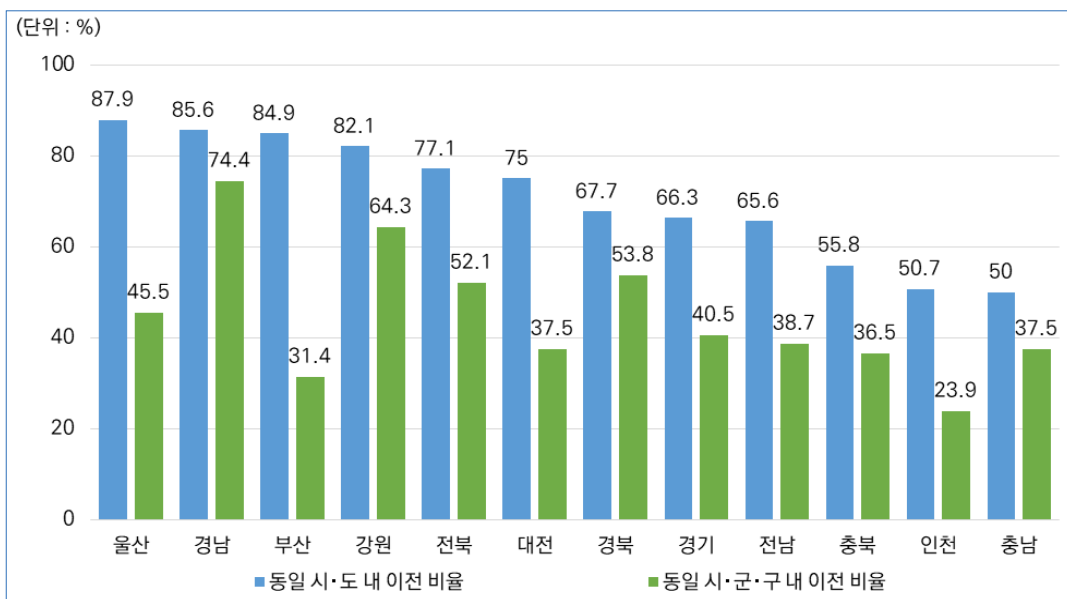
산단 소재지	기존 소재지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			합계 (91개)
		인천 (2개)	경기 (18개)	강원 (4개)	대전 (1개)	충북 (12개)	충남 (7개)	전북 (6개)	전남 (10개)	경북 (10개)	부산 (6개)	울산 (1개)	경남 (14개)	
수도권	서울	5	64			4		3		1	1		3	81
	인천	34	91			1								126
	경기	27	342	3		14	1	3	2	1	1	1	3	398
강원권	강원		1	23					1					25
충청권	대전		2		18			3			1			24
	세종					1	2							3
	충북	1	5	1	1	29	1			1			3	42
	충남		3	1	5	1	4							14
호남권	광주		2					1	27					30
	전북		2					37	1				1	41
	전남		1					1	61			1	1	65
대경권	대구		1							10			1	12
	경북					1				44		1		46
동남권	부산		1							1	73		13	88
	울산		1			1				7	1	29	6	45
	경남								1		9	1	184	195
총합계 (A)		67	516	28	24	52	8	48	93	65	86	33	215	1,235
동일 시·도 내 이전	개수 (B)	34	342	23	18	29	4	37	61	44	73	29	184	878
	비율 (B/A)	50.7	66.3	82.1	75	55.8	50	77.1	65.6	67.7	84.9	87.9	85.6	71.1
동일 시·군·구 내 이전	개수 (C)	16	209	18	9	19	3	25	36	35	27	15	160	572
	비율 (C/A)	23.9	40.5	64.3	37.5	36.5	37.5	52.1	38.7	53.8	31.4	45.5	74.4	46.3

주: 서울, 대구, 광주, 세종, 제주를 분석대상 신규 산업단지가 없음.
 자료: 저자 작성.

- 즉, 신규 산업단지로 이전한 사업체의 절반 가량이 근거리라 할 수 있는 동일 시·군·구에 소재했었고, 20%가량은 해당 시·도 내 타 시·군·구에서 이전하였으며, 나머지 30%가량은 타 시·도에서 이전해 왔다는 것임

- 이는 전국사업체조사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2002년부터 2012년까지의 기간 중 사업체의 지역 간 이동을 분석한 선행연구(안흥기 외 2014)와도 매우 유사한 결과임
 - 안흥기 외(2014)의 연구에서는 해당 기간의 사업체 이동 중 전 산업에서는 79.4%가 동일 시·도 내 이동이었고, 제조업에서는 68.6%가 동일 시·도 내 이동이었다고 분석함
 - 물론 본 연구와는 활용한 기초자료가 다르고 동일업체 판단 기준 등도 일부 상이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지만, 제조업의 경우 본 연구에서 도출한 신규 산업단지로의 시·도 내 이전 비율인 71.1%와 2.5%가량의 차이만이 존재함
- 보다 구체적으로 시·도 내 및 시·도 간 이전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이전을 통해 신규 산업 단지에 입주한 1,235개 사업체 중 기존 소재지가 수도권이었던 경우는 절반 가량인 49.0%(605개)로 조사됨
 - ※ 다만, 605개 사업체 중 93.1%(563개)가 수도권 내 3개 시·도 간 이전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나머지 6.9%만이 충청 등 타 지역으로 이전함
- 이전 사업체 중 동일 시·도 내에서의 이전 비율은 울산, 경남, 부산, 강원, 전북, 대전 등의 순으로 높았으며, 충북, 인천, 충남은 50% 수준으로 타 시·도에 비해 낮았음
 - 특히 충북은 신규 산업단지로 이전한 52개 사업체 중 36.5%(19개)가 수도권에서 이전한 경우로 인천과 경기를 제외한 10개 시·도 중 수도권에서 이전한 비율이 가장 높았음
 - 또한 도 단위에서는 동일 도에서의 이전 비율이 높을 경우 전반적으로 동일 시·군·구 내에서의 이전 비율도 높게 나타남
 - ※ 도 단위에 비해 면적이 작은 광역시는 구 또는 군 단위에서 동일 시·군·구 내 이전 비율이 집계되었기 때문에 그 비율이 도 단위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남

그림 4 신규 산업단지 이전 사업체 중 동일 시·도 및 동일 시·군·구 내 이전 비율



자료: 저자 작성.

■ 권역별 사업체 이전

- 사업체 이전을 단순히 시·도 단위로 파악할 경우 시·도 간 이전 비율이 높아지고, 시·도 내 이전 비율은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권역별로 사업체 이전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음
 - 수도권과 광역시에 소재했던 기업들은 인접 도와의 접경지역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존재하며, 이 경우 산업단지에 입주하기 위해 근거리 이동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시·도 간 이전으로 분류됨으로써 실제 지역에서 체감하는 바와는 다소 괴리가 발생함
 - 또한 시·도별로 면적도 상이하기 때문에 광역시와 인접 도 지역을 포함한 권역 단위로 사업체 이전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음
- 시·도별 사업체 이전을 권역별 사업체 이전으로 재정리한 결과는 아래와 같으며, 시·도 간 접경지역에서의 이전이 권역 내 사업체 이전으로 분류됨에 따라 전체적으로는 권역 내 이전의 비율이 92.8%로 높아짐

표 8 신규 산업단지 이전 사업체 중 권역 내 및 권역 간 이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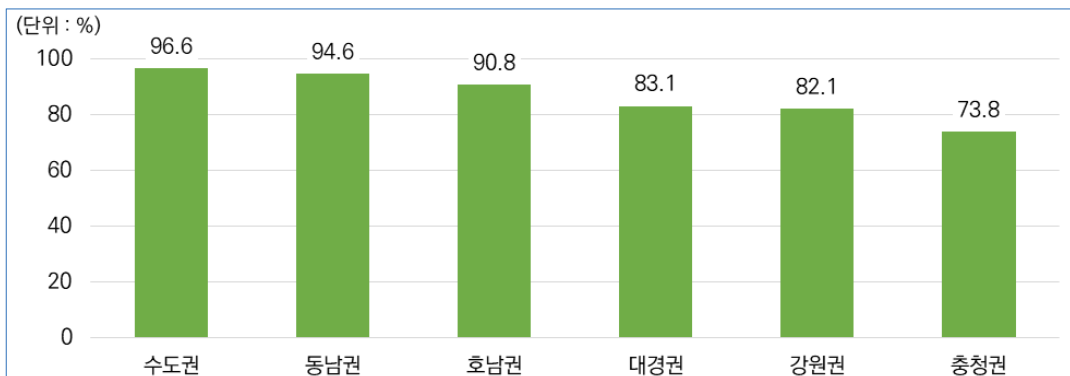
(단위: 개, %)

구분	분석대상 산업단지 소재 권역						합계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	
권역 내 이전	563	23	62	128	54	316	1,146
권역 간 이전	20	5	22	13	11	18	89
합계	583	28	84	141	65	334	1,235
권역 내 이전 비율	96.6	82.1	73.8	90.8	83.1	94.6	92.8

자료: 저자 작성.

- 권역 내 이전 비율은 수도권이 96.6%로 가장 높았으며, 수도권 및 타 권역으로부터 이전이 상대적으로 많이 이루어진 충청권은 권역 내 이전 비율이 73.8%로 가장 낮음
 - ※ 수도권의 경우 인천과 경기 각각의 동일 시·도 내 이전 사업체 비율은 전국 평균(71.1%) 이하지만, 서울과 인천, 경기 간 사업체 이전이 많기 때문에 수도권 내에서의 이전 비율은 96.6%로 높게 나타남

그림 5 신규 산업단지 이전 사업체 중 동일 권역 내 이전 비율



자료: 저자 작성.

2) 이전 사업체의 이동거리

■ 시·도별 이전 사업체의 이동거리

- 분석대상 91개 신규 산업단지로 이전한 1,235개 사업체의 평균이동거리는 21.9km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동일 시·군·구 또는 시·도 내에서의 이전이 신규 산업단지 입주수요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앞선 분석결과를 재확인시켜줌

표 9 시·도별 이전 사업체의 평균이동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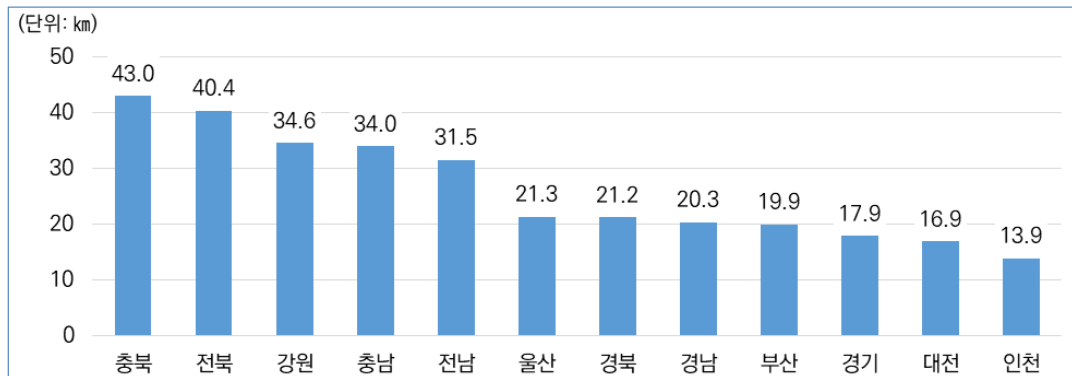
(단위: km)

구분	전국	분석대상 산업단지 소재 시·도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		
		인천	경기	강원	대전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부산	울산	경남
평균이동거리	21.9	13.9	17.9	34.6	16.9	43.0	34.0	40.4	31.5	21.2	19.9	21.3	20.3

자료: 저자 작성.

- 또한 전반적으로 행정구역 면적이 작은 광역시와 제조업 기반이 양호한 도 지역(경기, 경남)에서 이전 사업체의 이동거리가 짧고, 시·도 간 이전 비율이 높게 나타난 충북 및 충남과 도 외곽 지역에서 사업체 이전이 많은 전북·전남은 이동거리가 길게 분석됨
- ※ 강원の場合は 이전 사업체의 이동거리가 34.6km로 충남이나 전남과 비슷했지만, 이전 사업체의 수가 적은 가운데 도 외곽이나 수도권에서 일부 사업체가 이전하면서 이동거리가 길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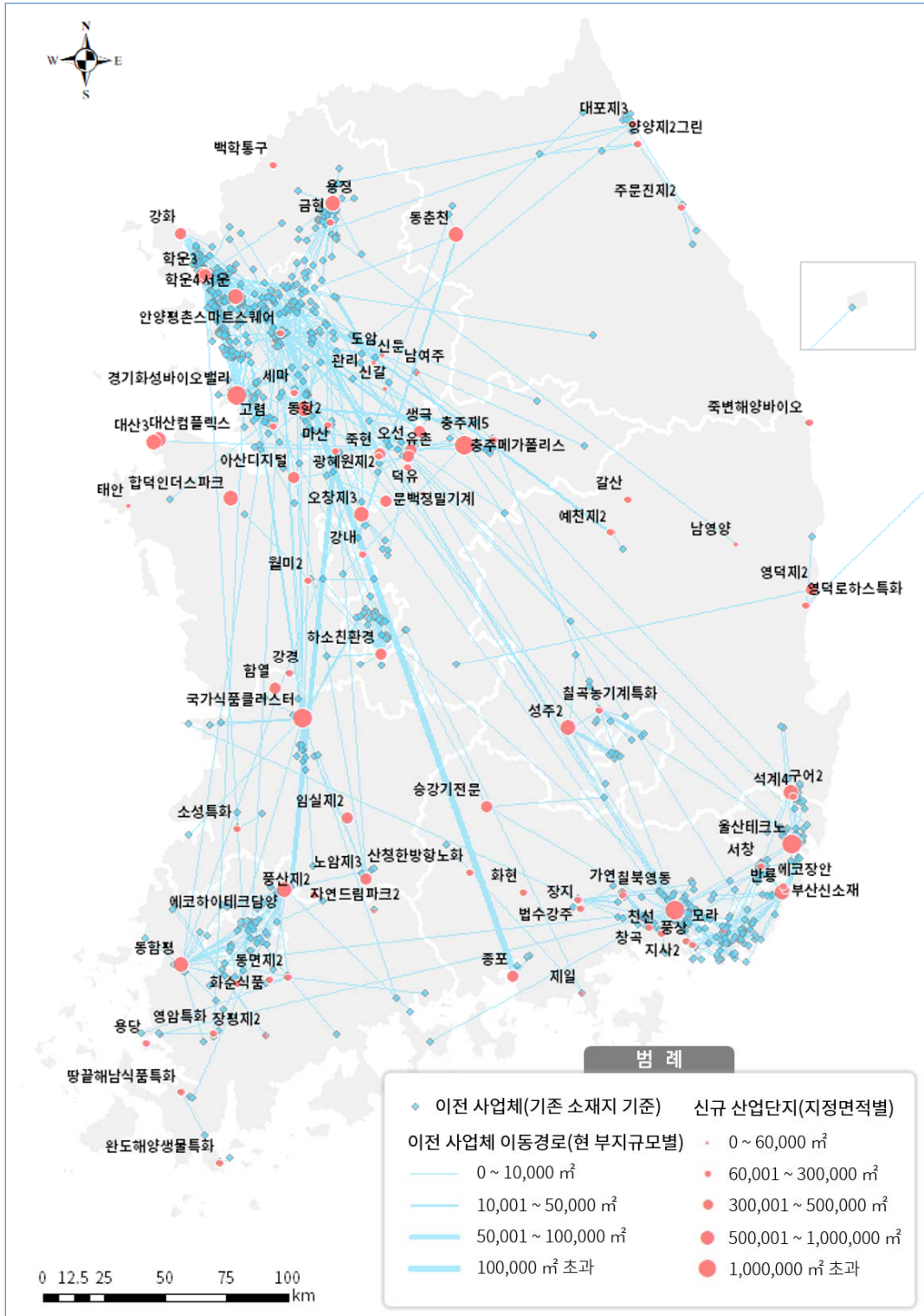
그림 6 시·도별 이전 사업체의 평균이동거리



자료: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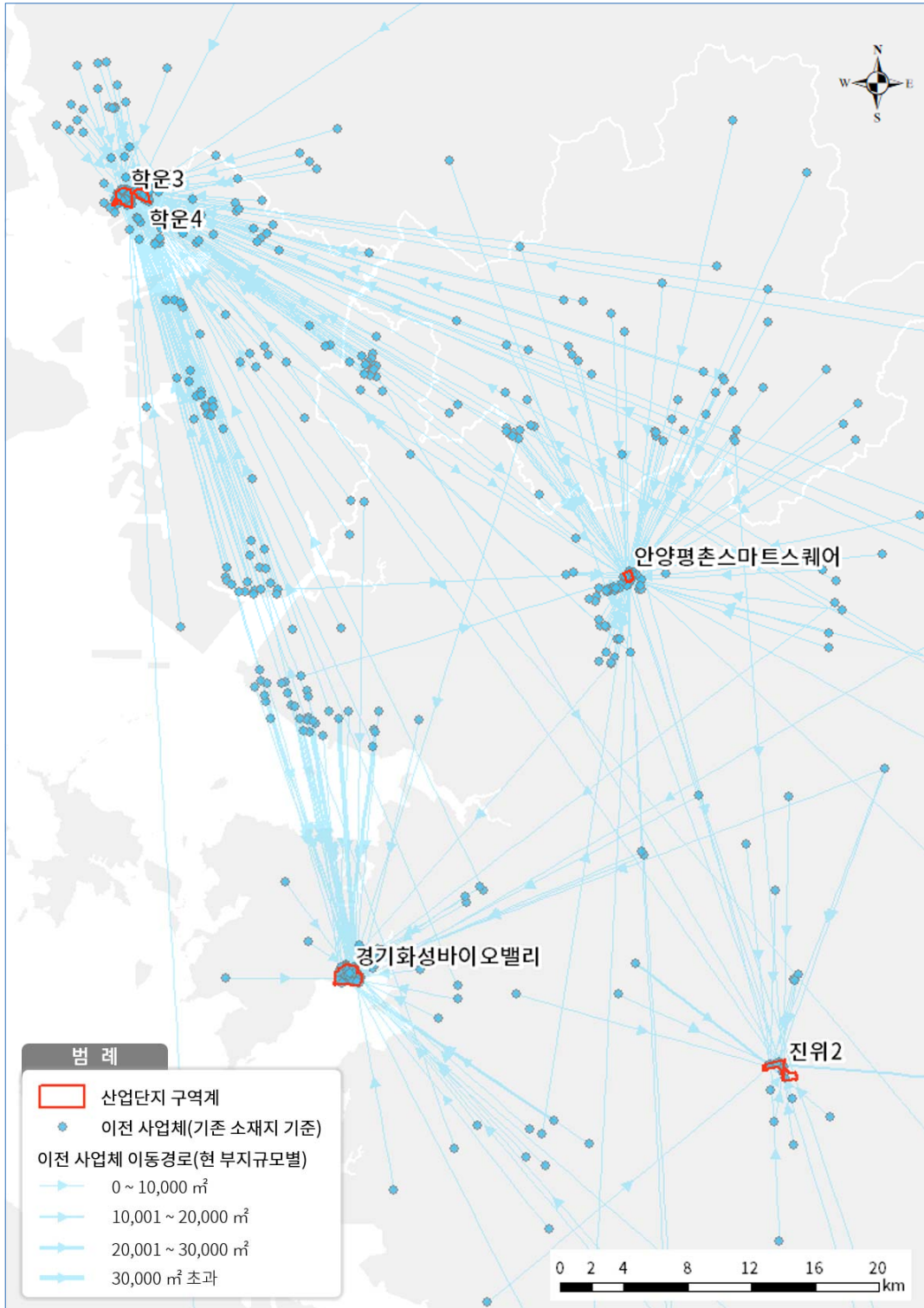
- 한편 <그림 7>과 <그림 8>는 신규 산업단지로 이전한 사업체의 이동경로를 시각화한 이미지로 이전 사업체의 대부분이 산업단지가 조성된 지역으로부터 근거리에 위치했었으며, 시·도 간 이전으로 집계되더라도 실제로는 근거리 이동일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줌
- ※ 특히 <그림 7>을 통해 수도권 3개 시·도 간 사업체 이동, 수도권과 충청권 접경지역에서의 사업체 이동, 광역시와 연접 도 접경지역에서의 사업체 이동이 많다는 것을 관찰할 수 있음. 이러한 지역들에서는 사업체 이동경로가 근거리임에도 불구하고, 행정구역별로 집계할 경우 시·도 간 이동 비율을 높임.

그림 7 이전 사업체의 기존 소재지에서 입주 산업단지로의 이동



주: 제주도는 분석대상 산업단지가 없으며, 타 지역의 신규 산업단지로 이전한 사업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됨.
 자료: 저자 작성.

그림 8 경기도 서남부 5개 신규 산업단지의 입주 사업체 이동경로 예시



자료: 저자 작성.

■ 권역별 이전 사업체의 이동거리

- 권역별 이전 사업체의 평균이동거리는 충청권·강원권·호남권이 거의 유사하게 34km가량으로 수도권·대경권·동남권보다 길게 분석됨
- 이는 시·도별 이전 사업체의 평균이동거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충청권의 경우 시·도간 이전 비율이 높고 호남권과 강원권의 경우도 외곽 지역에서 사업체 이전이 많았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음

표 10 권역별 이전 사업체의 평균이동거리

(단위: km)

구분	전국	분석대상 산업단지 소재 권역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
평균이동거리	21.9	17.4	34.6	34.7	34.5	21.2	20.3

자료: 저자 작성.

3) 산업단지 유형별 사업체 신설 및 이전

- 산업단지 유형별로는 일반산업단지와 농공단지로 입주한 사업체(신설과 이전을 포함)가 82.8%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국가산업단지와 도시첨단산업단지에는 17.2%의 사업체가 입주함
- 이전을 통해 입주한 사업체의 비율은 일반산업단지(73.4%), 도시첨단산업단지(70.0%), 국가산업단지(67.3%), 농공단지(64.8%)의 순으로 높음

표 11 산업단지 유형별 신설 및 이전 사업체 수

구분	국가	일반	도시첨단	농공	합계
신설	17	340	73	50	480
이전	35	938	170	92	1,235
합계	52	1,278	243	142	1,715
이전 비율	67.3%	73.4%	70.0%	64.8%	72.0%

자료: 저자 작성.

4) 규모별(본사 기준) 신설 및 이전

- 신규 산업단지에 입주한 1,715개 사업체 중 본사의 사업 규모가 소기업(568개) 및 소상공인(784개)인 경우가 78.8%(1,352개)로 가장 많았으며, 이전 사업체에서도 80.0%(998개)가 소기업(442개) 및 소상공인(546개)으로 조사됨

- 또한 규모가 작을수록 이전하는 경향도 크지만 신설되는 사업체 수도 많기 때문에 사업체 규모별 이전 비율은 오히려 소기업과 소상공인일 경우가 그 이상의 사업체 규모에서 보다 더 낮게 산출됨³⁾

표 12 사업체 규모별 신설 및 이전 사업체 수

구분	대기업	중견기업	중기업	중소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기타	합계
신설	-	4	19	-	126	238	93	480
이전	2	21	175	3	442	546	46	1,235
합계	2	25	194	3	568	784	139	1,715
이전 비율	100.0%	84.0%	90.2%	100.0%	77.8%	69.6%	33.1%	72.0%

주: 분석대상 신규 산업단지에 입주한 사업체의 본사 소재지 현황은 [부록 2] 참조.
 자료: 저자 작성.

3) 다만, 이전보다는 신설의 경우에 제도적인 기업지원이 많기 때문에 규모가 작은 사업체일수록 기존 사업체를 폐업한 후 사업체를 신설로 등록하는 경향이 일부 존재한다는 의견도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04 분석결과 종합 및 정책적 시사점

1) 분석결과 종합

- 신규 산업단지 입주 수요 중 신설과 이전 비율은 각각 28.0%(480개)와 72.0%(1,235개)이고, 이전한 사업체 중 동일 시·도에서 이전한 비율은 71.1%(878개)로 분석됨
 - ※ 행정구역별 분석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실시한 권역별 이전 분석결과에서는 이전한 사업체 중 동일 권역에서 이전한 비율이 92.8%(1,235개)로 파악됨

표 13 신규 산업단지 입주 사업체의 구성

구분		사업체수(개)	비율(%)	
신설	소계	480	28.0	
	본사 소재지와 사업체 소재지가 동일한 시·도	460	26.8	
	본사 소재지와 사업체 소재지가 상이한 시·도	20	1.2	
이전	소계	1,235	72.0	
	동일 시·도 내 이전	동일 시·군·구 내 이전	572	33.4
		타 시·군·구에서 이전	306	17.8
	타 시·도에서 이전	357	20.8	
	합계	1,715	100.0	

주: 단독 사업체인 경우 신설에서 본사 소재지와 사업체 소재지가 동일한 경우로 분류.
 자료: 저자 작성.

- 권역별 이전 사업체 분석결과를 토대로 산출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사업체 이전 비율에 서는 수도권 내에서 이전한 사업체가 전체 이전 사업체의 45.6%(563개)를 차지함

표 14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사업체 이전

구분	사업체수(개)	비율(%)
수도권 내 이전	563	45.6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전	42	3.4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전	20	1.6
비수도권 내 이전	610	49.4
합계	1,235	100.0

자료: 저자 작성.

- 또한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전한 경우는 3.4%였으며,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전한 경우는 1.6%에 불과했음
 - ※ 이외에 비수도권 내에서 이전한 비율이 49.4%(610개)로 나타나기는 하였지만, 대부분 동일 권역 내에서의 이동(583개)으로 파악됨.
- 이전 사업체(1,235개 사업체)와 해당 사업체가 입주한 신규 산업단지 간 평균이동거리는 21.9km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신규 산업단지로의 사업체 이전이 동일 시·군·구 또는 동일 시·도 내에서 이루어진다는 선행연구들에서의 분석결과를 재확인시켜 줌
- 산업단지 유형별 사업체 신설과 이전 비율에서는 국가산업단지와 농공단지가 일반산업단지나 도시첨단산업단지에 비해 신설 비율이 높게 분석되었지만, 그 결과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국가산업단지에서 기업들에 의한 사업체 신설 투자가 높은 이유는 국가산업단지가 타 유형의 산업단지에 비해 국가 차원의 육성 의지 및 클러스터 구축 노력이 강하고, 기업 차원에서도 보다 확장된 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이 용이하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음
 - 농공단지의 경우도 낙후 지역의 소득 증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역 내 영농법인 등에 의한 소규모 사업체의 신설이나 지역에 기반을 둔 개인사업체에 의한 법인 신설이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으로 추정됨
- 이외에 본사의 규모별 이동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이전한 사업체의 대부분이 규모가 작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인 경우였음
 - ※ 사업체 규모는 해당 사업체 자체의 고용이나 매출액을 기준으로 분류한 것이 아니라 본사 규모를 기준으로 분류된 것이므로 해석상 주의를 요함

2) 정책적 시사점

- 산업단지는 지역 산업 공간의 효율적 조정과 역외 기업(사업체)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서 여전히 유효함
 - 신규 산업단지로 이전하는 사업체의 상당 부분이 해당 산업단지와 근거리에 위치했었다는 분석결과는 지역의 공간계획 측면에서 산업단지가 지역 산업 공간의 효율적 조정(난개발된 개별입지 공장의 흡수 등)을 위한 중요한 수단임을 의미함
 - 또한 전산업을 기준으로 분석한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고려할 때 산업단지가 역외 기업(사업체)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추정이 가능함
 - 본 연구에서는 신규 산업단지로 이전하는 사업체 중 30% 가량(28.9%)이 타 시·도로부터 이전한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함

- 이는 전 산업을 기준으로 분석한 여러 선행연구들에서 20% 가량만이 타 시·도로부터 이전했다는 결과들과 비교할 때, 제조업 중심의 산업단지가 역외 기업 유치에도 긍정적 효과를 발휘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음

※ 다만, 선행연구(안흥기 외 2014; 정윤선 2015)와는 활용한 자료와 분석방법 등의 차이로 인해 직접적인 비교는 다소 어려울 수 있음

■ 국토의 균형 있는 개발과 산업발전을 위해서는 수도권 사업체(기업)의 비수도권 이전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적 노력이 요구됨

- 이전을 통해 산업단지에 입주한 사업체 중 불과 3.4%만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 또한 5년간 누적된 수치임을 고려할 때 비수도권에서 체감하는 수도권 사업체의 비수도권 이전 수준은 연간 1% 이하로 극히 낮다는 것을 의미함
- 물론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사업체의 개수나 비율보다는 소수의 사업체가 이전하더라도 지역의 고용을 보다 많이 창출하거나 역외에 소재한 연관 사업체의 지역 내 이전을 촉진시키는 등 질적인 측면에서의 효과가 보다 중요할 수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히 낮은 수도권 사업체의 비수도권 이전 수준은 산업기반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비수도권의 산업경쟁력을 정체 내지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비판으로까지 이어짐
- 따라서 비수도권 지역의 균형 있는 성장과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지역경제에 파급 효과가 큰 사업체의 비수도권 이전을 유도할 수 있는 지속적인 정책적 노력이 요구됨

■ 지역 차원에서는 신규 산업단지의 역할 재정립과 함께 산업부문을 포함한 지역의 전반적인 여건 및 공간발전 계획에 적합하도록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그간 지역 차원에서는 산업단지의 역할에 대해 지역경제 성장 측면에 큰 비중을 두고 강조해왔으며, 특히 비수도권에서는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수도권 등의 역외 기업 유치가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였음
- 그러나 산업단지 입주수요의 대부분이 지역 내에서 근거리 이동을 통해 채워진다는 분석 결과는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이루어지는 도시 및 지역의 공간계획 측면에서의 공간적 조정도 산업단지의 중요한 역할임을 다시금 확인시켜줌
- 따라서 지역 산업과 공간 등의 측면에서 신규 산업단지가 수행하는 다양한 역할들을 재정립하고, 지역의 여건 및 실정에 적합한 산업단지를 조성할 필요가 있음

- 신규 산업단지의 역할을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을 중심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일차적으로 지역 내 산업입지의 계획적 공급과 관리에 보다 중점을 두고, 이 과정에서 동종 또는 이종의 업종 간 지역화 및 도시화 경제를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함
- 또한 공간계획 측면에서 지역의 여건 및 실정에 적합하도록 신규 산업단지의 입지를 고려하는 한편, 이전 사업체가 소재했던 개별입지가 다시금 난개발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

■ 비수도권에서 신규 산업단지 조성 시에는 지역 내 기업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이전 수요를 파악하고, 이들 기업들과 시너지를 발생시킬 수 있는 역외 기업의 선별적 유치 전략이 필요함

- 신규 산업단지 개발 시 입주 수요를 예측하고, 이를 토대로 해당 지역의 산업단지 공급 및 개발에 대한 과잉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존재함
- 다만, 신규 산업단지 입주 수요의 대부분이 지역 내 입주 수요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입주 수요 확보를 위해서는 선행적으로 지역 내 기업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함
- 그리고 이를 통해 지역 내 이전 예상 기업을 분류하고, 이들 기업과 시너지 창출이 가능한 역외 기업을 선별하여 유치하기 위한 기업유치 전략이 요구됨

30

■ 비수도권의 산업기반이 약한 지역에서 역외 기업 유치에 초점을 둔 신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는 국가 또는 광역 차원의 산업육성 전략 및 기반시설 확충 계획과 병행이 요구됨

- 신규 산업단지로 이전하는 사업체의 상당수가 지역 내에서 근거리로 이동했다는 것은 산업기반이 약한 지역에서 신규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역외 기업 유치에는 한계가 존재하며, 지역경제의 성장동력 확보 내지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당초 기대했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함
- 따라서 산업기반이 약한 지역에서 신규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이를 통해 역외 기업 유치를 적극적으로 도모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가 및 광역 차원의 산업육성 전략 및 기반시설 확충 계획과 병행이 필요함

[부록 1] 신규 산업단지 및 입주 사업체 기초현황

■ 분석대상 신규 산업단지

- 분석대상 신규 산업단지는 2010년부터 지정되어 최근 5년(2015~2019) 내에 준공된 91개 산업단지이며, 준공연도를 기준으로 한 신규 산업단지 수는 아래와 같음

부표 1 준공연도별 신규 산업단지 수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합계
단지수(개)	16	13	23	22	17	91

주: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보센터(www.industryland.or.kr)의 단지별 일반현황을 기초로 지정 및 준공 시기를 파악한 후 분류하였으며, 구역계 확인이 현시점에서 어려운 산업단지 등을 제외함.

자료: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보센터 통계검색 일반현황(<https://www.industryland.or.kr>, 2020년 9월 4일 검색).

- 91개 산업단지의 지정면적은 32.2km²이며, 분양대상 산업시설용지 면적은 21.2km²임

부표 2 신규 산업단지의 지정면적 및 산업시설용지 면적

(단위: 개, km²)

구분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		합계
	인천	경기	강원	대전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부산	울산	경남	
단지수	2	18	4	1	12	7	6	10	10	6	1	14	91
지정면적	1.0	6.5	1.0	0.3	5.2	2.4	3.7	2.4	3.2	1.2	1.3	4.1	32.2
분양대상 산업시설용지	0.6	4.3	0.6	0.2	3.5	1.8	2.5	1.5	2.1	0.7	0.7	2.6	21.2
산업시설용지 분양면적	0.6	4.2	0.4	0.2	3.4	1.7	1.4	1.3	1.8	0.7	0.7	2.5	18.8

주: 서울, 대구, 광주, 세종, 제주를 분석대상 신규 산업단지가 없음.

자료: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보센터 통계검색 일반현황(<https://www.industryland.or.kr>, 2020년 9월 4일 검색).

- 산업단지 유형별로는 국가산업단지 1개, 일반산업단지 59개, 도시첨단산업단지 4개, 농공단지 27개였으며, 지정면적은 일반산업단지가 76.6%(24.7km²)를 차지함

부표 3 유형별 신규 산업단지 수

(단위: 개, km²)

구분	국가	일반	도시첨단	농공	합계
단지수	1	59	4	27	93
지정면적	2.3	24.7	0.5	4.7	32.2
분양대상 산업시설용지	1.5	16.2	0.3	3.2	21.2
산업시설용지 분양면적	0.8	15.5	0.2	2.3	18.8

자료: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보센터 통계검색 일반현황(<https://www.industryland.or.kr>, 2020년 9월 4일 검색).

■ 신규 산업단지로 이전한 사업체 기초현황

- 2020년 6월 말 현재 분석대상 신규 산업단지에서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업체는 1,715개로 파악되었으며, 사업체 규모별(본사 기준)로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78.8%를 차지함

부표 4 신규 산업단지로 이전한 사업체의 현 소재지와 사업체 규모별(본사 기준) 개수

(단위: 개, %)

구분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			합계(비율)
	인천	경기	강원	대전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부산	울산	경남	
대기업		1				1							2 (0.1)
중견기업		16	1		3		1		2	2			25 (1.5)
중기업	15	80	2	3	13	1	7	5	14	13	4	37	194 (11.3)
중소기업		1			1							1	3 (0.2)
소기업	32	229	16	14	22	4	14	29	37	40	14	117	568 (33.1)
소상공인	25	303	19	12	38	6	45	88	42	53	22	131	784 (45.8)
미분류	6	71	8	1	8	1	4	14	5	11		10	139 (8.1)
합계 (비율)	78 (4.5)	701 (40.9)	46 (2.7)	30 (1.7)	85 (5.0)	13 (0.8)	71 (4.1)	136 (7.9)	100 (5.8)	119 (6.9)	40 (2.3)	296 (17.3)	1,715 (100.0)

자료: 저자 작성.

- 입주 사업체의 형태를 본사, 사업장, 국내지사 등으로 구분하였을 때 88.1%가 본사였으며, 이는 대부분 본사 단독사업체일 것으로 추정됨

부표 5 신규 산업단지로 이전한 사업체의 형태

구분	본사	사업장	국내지사	기타	합계
사업체수(개)	1,511	93	95	16	1,715
비율(%)	88.1	5.4	5.5	0.9	100.0

자료: 저자 작성.

[부록 2] 신규 산업단지에 입주한 사업체의 본사 소재지 현황

- 신규 산업단지에 입주한 1,715개 사업체 중 동일 시·도 내에 본사가 위치한 경우는 1,623개(신설 460개, 이전 1,163개)로 94.6%를 차지함

(단위: 개)

산단 소재지	본사 소재지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			합계				
		서울	인천	경기	강원	대전	세종	충북	충남	광주	전북	전남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합계	지역내	지역외	
	소계	4	14	182	18	6		31	6	2	21	41	2	34	34	7	78	480	460	20	
신 설	수도권	인천	11															11	11	0	
		경기	2	3	178									1		1			185	178	7
	강원권	강원				18												18	18	0	
	충청권	대전					6												6	6	0
		충북			2				31										33	31	2
	호남권	충남								5									5	5	0
		전북			1						1		21						23	21	2
	대경권	전남										2		41					43	41	2
		경북			1										1	33			35	33	2
	동남권	부산														32		1	33	32	1
		울산															7		7	7	0
		경남	2											1	1		77	81	77	4	
	소계	14	70	505	30	27	1	48	8	5	44	91	3	58	90	34	207	1,235	1,163	72	
이 전	수도권	인천	1	63	2		1											67	63	4	
		경기	7	7	495	2				1	1		1		1	1		516	495	21	
	강원권	강원	1			27												28	27	1	
	충청권	대전					24												24	24	0
		충북	2		2				46					1		1			52	46	6
	호남권	충남							1	7									8	7	1
		전북			2		2					42	1		1				48	42	6
	대경권	전남			1						4	1	87						93	87	6
		경북	1			1								3	56		3	1	65	56	9
	동남권	부산						1								83		2	86	83	3
		울산			2								1				30		33	30	3
		경남	2		1				1			1	1		6		203	215	203	12	
	합계	18	84	687	48	33	1	79	14	7	65	132	5	92	124	41	285	1,715	1,623	92	

자료: 저자 작성.

참고문헌

-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보센터 통계검색 일반현황. <https://www.industryland.or.kr/> (2020년 9월 4일 검색).
- 김창석, 남진. 1996. 수도권지역 기업본사의 입지이전 경로와 특성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제31권 제1호: 2-72.
- 류승한. 2006. 산업입지 수요조사 방법 및 기준 표준화 방안 연구. 세종: 국토연구원.
- _____. 2019. 혁신도시 기업유치를 위한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요인 연구. 세종: 국토교통부.
- 박재곤, 변창욱. 2012. 산업용지 수요 추정 및 전망 - 패널 공적분 관계를 이용하여 -. 세종: 산업연구원.
- 산업연구원. 2016.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현황 및 이전요인 분석. 세종: 산업통상자원부.
- 안영수, 이승일. 2014. 수도권 기업이동 공간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산업유형별 기업이동 특성 연구. 국토계획 제49권 제5호: 17-28.
- 안흥기, 서태성, 박경현. 2014. 지역개발사업의 과다수요추정 원인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세종: 국토연구원.
- 이한일, 이변송. 2002. 수도권 내 이전제조업체의 입지결정요인분석. 국토계획 제37권 제7호: 103-116.
- 장철순, 류승한, 강호제, 이윤석, 김주훈, 박영철, 임영식 외. 2015. 산업입지 수급계획 수립지침 보완 및 산업단지 수급 적정화 방안 연구. 세종: 국토교통부.
- 정수연. 2008. 한국 상장, 코스닥 기업의 입지이전결정요인과 입지특성에 관한 연구. 부동산학연구 제14집 제1호: 65-80.
- 정윤선. 2015. 기업의 지역간 이동분석 및 정책적 과제. 세종: 산업연구원.
- 최미희, 임도진. 2010. 산업단지 공급 관련 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서울: 국회예산정책처.
- 최준영, 오규식. 2012.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의 지역간 이동 패턴 및 요인 분석. 국토계획 제47권 제7호: 5-20.
- 황성호, 이재우. 2018.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이동 특성: 대덕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감정평가학 논집 제17권 제1호: 147-168.

국토연구원 Working Paper는 다양한 국토 현안에 대하여 시의성 있고 활용도 높은 대안을 제시할 목적으로 실험정신을 가지고 작성한 짧은 연구물입니다. 투고된 원고는 정해진 절차를 거쳐 발간되며, 외부 연구자의 투고도 가능합니다. 공유하고 싶은 새로운 이론이나 연구방법론, 국토 현안이나 정책에 대한 찬반 논의, 국내외 사례 연구나 비교연구 등 국토분야 이론이나 정책에 도움이 될 어떠한 연구도 환영합니다.

투고를 원하시는 분은 국토연구원 연구기획·평가팀(044-960-0582, jhkim@krihs.re.kr)으로 연락주십시오.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WP 20-25

신규 산업단지 입주 사업체의 이동경로에 관한 연구

연구진 김석윤
발행일 2020년 12월 31일
발행인 강현수
발행처 국토연구원
홈페이지 <http://www.krihs.re.kr>

© 2020, 국토연구원

이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국토연구원의 자체 연구물로서 정부의 정책이나 견해와는 상관없습니다.

이 연구보고서는 한국출판인협회에서 제공한 KoPub 서체와 대한인쇄문화협회가 제공한 바른바탕체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